‘때문’의 문법화 연구
A Study on Grammaticalization of ‘ttaymun’

고동현
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

현재

[원인], [이유]의 ‘때문’

- 현재는 [원인]과 [이유]의 의미를 담당
- 어떤 사건이 일어난 배경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
- 나타내는 시간에 따라 별도의 시제 표지 요구.

원조 아담만 모든 사람 중에 죄를 범하셨기 때문에 ↓
세상 모든 사람들이 벌을 받는 것이 알 수 없다는 말씀이오.↓

- 형태통사적으로는, ‘-기’와의 결합 긴밀
- 특히 ‘때문에’의 경우, 조사화가 많이 진행되었다.

머리 깎았기 때문에 개화한 줄로 아는가↓

[원인]의 ‘때문’

- 19세기 말, 20세기 초에는 [원인]의 의미만을 담당
- 선행 사건이 후행 사건을 일으킴을 나타낸다.
- 과거 사건이지만 별도의 시제 표지를 요구하지 않음

원조 아담만 모든 사ᄅᆞᆷ 즁에 죄를 범ᄒᆞ시기 ᄭᆡ문에 ↓
셰샹 모든 사ᄅᆞᆷ들이 벌을 밧ᄂᆞᆫ 것이 알 수 업다ᄂᆞᆫ 말ᄉᆞᆷ이오↓

- 형태통사적으로는, ‘-ㄴ’을 선행 요소로 쉽게 취함
- 의존명사로서의 성격이 강했다.

머리 ᄭᆞᆨ근 ᄭᆡ문에 ᄀᆡ화ᄒᆞᆫ 줄노 아ᄂᆞᆫ가↓

- [원인]만에서 [이유]까지 나타낼 수 있게 되었다.
- 시간의 영역이 넓어짐
- 과거 아닌 사건 나타낼 수 있게 된 것이 교량 역할

철수가 왔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떡볶이를 먹는다. [원인]
오늘 저녁에 떡볶이를 먹을 것이기 때문에 철수가 왔다. [미래]
오늘 저녁에 떡볶이를 먹기 때문에 철수가 왔다. [이유]

20C 초
19C 말

‘때문’의 문헌 등장

‘때문’은 어디에서 기원했을까?

형식명사 ‘ᄃᆞᆷ’?

- ‘-로’와 함께 쓰여 [원인], [이유]를 나타냈었음
- 그러나 ‘이런, 그런, 엇던’과만 결합하는 등, 이미 쇠퇴 중이었음
- 문헌에서 사라졌다 갑자기 다시 등장한다고 보기 어려움

일본어 ‘為に(tameni)’의 차용어?

- 일본어에서 [목적], [이유], [원인] 등을 나타냄.
- 그러나 [목적]이 본래 의미로, [원인]만 차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움
- 내용어가 아닌 기능어까지 받아들일 만큼 일본어의 영향력이 강한 시기도 아니었음.

시간을 나타내는 명사 ‘때’

- 주절의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적 배경을 제시하는 기능

늙은 ᄂᆡ인들이 의인왕후 겨오신 ᄭᆡ 웃던 셤기웁던 일을 보아다가
來日 모ᄅᆡ ᄉᆞ이 져기 閑暇ᄒᆞᆫ ᄭᆡ 내여 두오리

-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선행 사건이 후행 사건의 [원인]임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문법화되는 것은 범언어적으로 쉽게 관찰되는 현상
- 신문 등의 새로운 매체에서 독자 확보를 위해 구어적인 요소를 도입했을 가능성 높음 (c.f. ‘-니까, -어서’)
- ‘-문’은 정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, 계사가 생략된 연결어미 결합형에서 왔을 가능성 있음.

반ᄃᆞ시 이 관농ᄒᆞᄂᆞᆫ ᄠᆡ면 열이 셩ᄒᆞᄂᆞ니가 만ᄒᆞ매
百姓들이 막 農事方張ᄒᆞᆫ ᄭᆡ매 아모리ᄒᆞ여도 젹이 보와가며

과거